

【50년 전부터 이어온 인연】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 입니다.

지난 8월 1일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된 「하수도 전 '17 동경」에 일본 하수도협회 회장으로서 출석했습니다.

이 하수도 전은 일 년에 한번 민간기업의 최신기술을 한곳에 모으는 하수도 업계 최대 이벤트로서 올해로 30회를 맞이하였습니다.

전시장에는 과거 10년 중 최대인 350개 회사와 단체, 1,102개의 부스가 출전되었고 전시내용도 간단한 오수처리 기술에 머물지 않고 침수대책이나 인구 감소 사회를 고려한 친환경 에너지, 자원절약, 설비의 노후화 대책 등 폭넓은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에 귀중한 지혜와 노력이 투입된 것을 실감했습니다.

또한 저는 올 6월에 선대 오쿠야마 센다이 시장에 이어 16대 회장에 취임했습니다만, 과거에는 오카자키 히라오 전 오카야마 시장도 회장을 역임했다고 합니다.

오카자키 시장님과 지금부터 약 50년 전의 쿠와타 중학교의 졸업식 축하 말씀을 해주실때 뵈 이후 약 10년 뒤 건설성 하수도기획과 재직 시에 우연이 만나 뵈 기회가 있었고 그때부터 오카야마시청 분들과도 친분을 맺게 되었습니다.

잘해주셨던 당시의 일을 떠올리며 저도 같은 입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 참 묘한 인연을 느꼈습니다.

앞으로는 오카야마시는 물론이고 전국의 하수도 정비 등에 의한 환경 보전의 추진에도 힘을 다하고자 생각합니다.